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과 한국 외교의 과제

박인휘*

- I. 머리말
- II. 한미일 협력: 의의와 국제질서 차원의 맥락
- III. 한미일 협력의 향후 의제
- IV. 동맹 네트워크와 소다자 협력
- V. 향후 과제
- VI. 맺음말

국문요약

지난 8월 18일(한국시간) 한미일 삼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삼국의 정상이 독자적인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인 행사에서 한 자리에 모인 최초의 삼자 정상회담이었다. 3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익은 서로 다르지만, 국제질서 혼돈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함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태지역과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제질서 혼돈기에는 가치와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가치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정신이고, 동시에 이제 어느 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공유이기도 하다.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외교 어

젠다를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번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설계하고 제시한 소위 ‘능동 외교’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사안에 있어서 미국 및 일본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번영에 적극 기여하여 외교적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그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교한 전략 수립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국제질서 위기, 인태전략, 소다자주의, 규칙 기반 질서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I. 머리말

한미동맹은 우리가 선택한 대표적인 ‘타력구제(other-help)’ 원칙의 외교안보 전략이었고,¹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외교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였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1953년에 체결된 현재의 한미동맹은 전후 질서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고, 동맹 체결 이후 70년의 시간은 그 이전 70년의 시간과 비교할 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학술적으로 논쟁이 없진 않지만, 미국 주도의 동맹은 또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을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시켰다.² 전후 질서에서 일본의 대동남아 경제 진출, 동남아 해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초기 단계의 아세안(ASEAN), 호주의 점진적인 동아시아 진출 등은 거시적으로 미국 주도의 지역 안정화 전략의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일 협력 역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라는 동맹 파트너를 공유한 사실과 깊게 연동되어 있다. 1965년 당시 한일 국교정상화를 가능케 했던 결정적인 동력의 하나는 미국의 적극적인 주문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초의 경제 협력과 1980년대의 한미일 협력은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던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더 많은 외교안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의 성격이 강했다.³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의 한일 관계 개선은 냉전 종식이라는 외부 환경 요인, 그리고 DJ 집권에 따른 완전한 민주화 실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 층 높아진 한국의 지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용주의적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일 모두로부터 역사문제 해결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¹ 대부분의 경우 동맹 체결의 주도권이 강대국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한미동맹을 한국이 선택한 ‘타력구제’로 표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체결 당시의 이승만의 리더십,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 한국 대중들의 반공의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선택했다는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함.

² Samuel Kim, 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2004); Kent Calder and Ming Ye, *The Making of Northeast Asi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³ 대표적인 연구로는 참고, 빅터 D 아 지움, 김일영·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지난 8월 말 한미일 삼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공동 발표했다. 삼국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인태 지역은 물론 지역 차원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차원의 목표 실현에 합의했는데,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삼국 간 파트너십은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이다.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삼국 협력의 비전과 원칙, 목표, 이행 체제 등을 명시한 3개 문서가 채택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적인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첫째, 한미일은 인태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조정기를 맞이하여,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아시아 지역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일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각자의 고유한 국가이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삼국이 각자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고 공통의 이익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셋째, 안보, 무역, 국제금융, 각종 비전통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능력을 제시하고, 향후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양자 및 다자적 접근과 함께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⁵ 한미일 삼국이 새로운 소다자주의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글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의미가 현재의 국제질서 위기 차원에서 어떤 연결성을 가지는지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가능한 의제들을 제시하며, 한미일 삼국 간 ‘소다자주의’ 차원에서 협력 제도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과제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삼국 협력이 미국의 안보이익 및 인태전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글의 분석 수준은 한국이 인식하는 삼국 협력의 중요성에 있다.

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정책브리핑』, 2023.8.18.

⁵ Chris Brummer, *Minilateralism: How Trade Alliances, Soft Law and Financial Engineering are Redefining Economic Statecraf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II. 한미일 협력: 의의와 국제질서 차원의 맥락

1.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의의

무엇보다도 지난 8월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회담만을 위해 모인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미일 삼국 간 정상회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의 경우만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 모두 12회에 걸친 회의가 있었지만, 모두 다른 목적으로 모인 국제회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었을 뿐, 이번처럼 독자적인 회담은 처음인 것이다. 합의의 내용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문제에서부터 경제 안보를 다룬 공급망 이슈는 물론 첨단 기술 협력과 지구적 차원의 다양한 사안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3국 간 인적 교류 등 한미일 삼국의 거의 모든 정책 분야를 언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무엇보다도 이런 합의들을 제도적 차원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특히 중요한데, 이번 합의는 향후 한미일 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상무·산업장관회의’ 및 ‘국가안보실장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소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제도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3국 간 협력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한미일 간 최초의 합의이고, 나아가 삼국 차원의 개별적인 국가이익은 물론, 인태 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는, 삼국 정상이 약속의 ‘제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향후 정부의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의 부담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약속을 통해 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삼국의 공감대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인태전략’ 이후 이 지역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⁶ 그런데 미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50여 개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에서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역내 최고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하는 한미일 삼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같은 국제질서의 불안정기를 맞이하여 큰 의미를 가진다. 국제질서가 불안정한 경우 대체로 규칙, 규범, 약속, 원칙 등과 같은 국제질서의 '가치 지향적인' 측면들이 강조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⁷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같은 국제안보 위기들이 전면에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국 협력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주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에 걸친 한국 외교의 주도적 측면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와 정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집권하면서 정책을 전개한다.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은 현 정부의 보수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민주화 이후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대부분의 보수정권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외교정책 추진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대미 및 대일 정책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전개과정이나 추진의 범위에 있어서, 과거 보수정권들과 차별되는 일종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대미 및 대일 관계에서 기존에 간헐적으로 발견되던 상대적인 약소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삼국 협력의 틀을 만드는 데에 외교적 주도성을 보였다는 차원에서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⁸

2. 국제질서의 혼돈과 한미일 협력

캠프 데이비드 삼국 협력은 한편으로 현 국제질서의 혼돈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소위 거시적인 복합 이행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탈냉전기 이후 세계화 3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는 다양한 성격과 차원의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낳았고, 특히 2008년을 전후로

⁶ 우리 정부도 작년 12월 28일 '자유·평화·번영'의 한국판 인태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⁷ Antje Wiener, *Contestation and Constitution of Norms in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⁸ 물론, '북방정책',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미동맹 미래비전' 등과 같이 과거에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삼국 협력'이라는 새로운 틀을 놓고 보자면,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가 두드러진다는 차원에서의 의미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스스로의 글로벌 리더십을 변화시키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COVID-19으로 상징되는 일견 통제가 불가능한 반세계화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확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국내외의 다수 전문가들은 결국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자기 조정 과정을 거쳐 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한다.⁹ 특히 더욱 효율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다자주의 협력이 등장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 한미일 협력은 이러한 예고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란 국가들 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규범과 규칙, 그리고 제도와 조직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국가들 간의 관계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할 때, 무질서 상태를 넘어선 질서 상태를 구성 및 유지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질서를 이루는 유일한 규범은 아닐 것이다. 다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조성 및 유지해왔는데,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특정 집단의 세력과 이익을 강조한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존중하는 공통의 규범과 다자주의적 제도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주의 규범과 다자주의적 해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자유주의 질서를 적극 활용하며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국제질서 도전 요인들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는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는 소위 수정주의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남반구(Global South) 국가들은 21세기 판 비동맹 노선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¹⁰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발판으로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 시기에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국제질서 혼돈의 중심에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경쟁은 제한된 자원과 권력,

⁹ 대표적으로 참고, Rebecca Alder-Nissen & Ayse Zarakol, "Struggles for Recognitio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Mergers of Its Discont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3, no. 2 (2021), pp. 611~634; Carla Norrlof, "Is covid-19 liberal democratic curse? Risks for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3, no. 5 (2021), pp. 799~813.

¹⁰ Darren Walker, "Can the G-20 Be a Champion for the Global South?," *Foreign Policy*, Sep 8, 2023.

Ⅲ. 한미일 협력의 향후 의제

1. 군사안보 중심의 협력 의제

한미일 협력이 제시한 정책 어젠다는 총 27개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 정책 분야만을 언급하자면, 북핵 대응, AI, 우주, 양자 컴퓨팅 등 첨단산업, 여성과 미래 세대, 경제안보, 환경 등 그야말로 거의 모든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과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 과제로 구분된다. 군사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의 관점에서 먼저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살펴보면, 삼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삼국 연례 공동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정상은 이번 선언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4조가 밝히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개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다소 느슨하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던 한반도 통일 지지에 대한 부분과 비교하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나타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서 차원의 일본의 지지는 최초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¹³

또한 선언문에 의하면 협력의 핵심은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¹⁴ 관점에 따라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관련하여 한미일 삼국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기존 다른 사례와 같은 군사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이크 설

¹³ 한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를 군사안보 분야에서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의제로 다룰 수 있지만, 북핵 문제는 4월 ‘워싱턴 선언’에서 집중적으로 협력방안이 도출된 바 있고, 또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포괄하는 다른 여러 의제들의 중요성을 참고할 때, 군사안보 의제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해 보임.

¹⁴ “[전문]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및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정책브리핑』, 2023.8.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087>> (검색일: 2023.10.20.).

리버트 미국 안보보좌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아시아의 나토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위협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강한 협의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⁵ 미국은 과거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정착될 때부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상호의존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구해 왔으며, 이번 회담으로 이러한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¹⁶ 따라서 역사적 맥락과 미국의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한미일 협력은 기존의 동아시아 바퀴살(hub & spokes) 동맹 체제의 완결성을 추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의 군사안보 분야 의제는 기술혁명에 기반한 군사력 및 작전능력 증대가 관건인데, 미국은 글로벌 군사 전략을 전개하면서 군사안보, 경제, 기술, 정치와 가치 등 다양한 정책영역과 차원에서 주도적인 기술력으로 복합적인 전략 틀을 짜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군사비 및 무기 체계, 그리고 맞춤형 군사 전략 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요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물론, 한미일 삼국 협력의 군사안보적 측면이 대중국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삼국 협력은 현실적으로 중국에 의한 소위 ‘힘에 의한 질서 변경’을 반대하는 공감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 협력의 대중국 관리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선언문은 중국을 가리키며 “남중국해”, “태평양 지역의 군사화”, “민병대 선박의 위협한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AI 혁명과 디지털 혁신으로 상징되는 기술혁명이 급속도로 진행하면서, 향후 무기 기술 및 전략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군사 혁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삼국이 함께 발전시키면서, 정부와 민간 영역 간 긴밀한 연계 속에서 한미일 삼국은 군사 기술 경쟁에서 가장 앞선 지위를

¹⁵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北도발 대응 다개년 공동훈련계획 발표,” 『연합뉴스』, 2023.8.18. 참고로, 흥미롭게도 설리번 보좌관의 이러한 설명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미국 뉴욕타임즈는 북핵에 대응한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등이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고, “NYT 한미일 정상회의, ‘아시아판 미니 나토’ 중국 우려 심화,” 『연합뉴스』, 2023.8.20.

¹⁶ 미국의 초기 동아시아 안보 전략을 포함한 전반적인 특징과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는 참고, William Tow, Mark Thomson, et al., *Asia-Pacific Security: US, Australia and Japan and the New Security Triangle* (N.Y.: Routledge, 2007).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래의 전쟁은 육해공, 우주, 사이버, 전자기, 그리고 인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친 전쟁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모든 분야의 전쟁 기술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메타 기술 혹은 기저 기술로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과학기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기술의 공동 개발 및 표준 협력 등에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첨단 기술을 통한 협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미일 삼국의 민간 경제 교류 및 상회의존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 의제¹⁷

이번 합의는 공급망, 경제안보, 여성, 미래 세대, 청정 에너지, ODA 등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도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쳐진 부분이 많다. 미국 역시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제조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 혁신 분야에서, 미국은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 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기반은 향후 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협력 관계에서 미국이 확보한 기술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있기 직전, 8월 9일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슈퍼 컴퓨터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분야 미국의 대중 투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향후 실무 부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겠지만, 이러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 규제와 함께, 미국의 기술 안보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양자적 차원의 기술 협력 및 통제뿐 아니라, 동맹국과 함께 다자적 차원의 대중 기술 안보를 추구하고 있고, 행정명령에서도 향후 동맹국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한 상태이다.¹⁸ 미국이 직면

¹⁷ 정책의 포괄성이 매우 넓고, 다양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안보 이익 공유가 전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비전통안보 중심”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음.

¹⁸ “미언론 “대중 투자규제 행정명령, 미중 해빙 다시 냉각 가능성”, 『연합뉴스』, 2023.8.10.

한 이러한 현실은 향후 한미일 협력이 구체화 및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일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작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한국 경제에 미친 장단점을 모두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¹⁹ 한미일 협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 및 다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미일은 또한 여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삼국 청년들 간 유대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개발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인프라 회복력,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시장 촉진,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지구적 문제의 해결, 특히 빈곤 퇴치를 위한 자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어느 특정 국가의 노력과 기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전형적인 협력안보(cooperative) 개념을 실천하겠다는 비전인데, 전통적인 개별 정부의 정치적 책임감(accountability)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다. 개개인의 다양한 이익과 이해관계는 개별 정부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는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고유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의 협력 정신과 역량 공유는 미래 이슈에 대한 삼국의 국제적 책임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

IV. 동맹 네트워크와 소다자 협력

한미일 삼각 협력은 기존의 한미, 미일 및 한일 중심의 양자관계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롭게 직면하는 위기에 대처하고 공동 이익의 확장을 위해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를 선택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한미일 협력이, 예를 들어, 인태 지역에서 작동하는 다른 소다자주의 협력체처럼 제도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는 판단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3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소다자 협력’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염두에 두고 정책 구상을 시도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그간 펼쳐졌던 바퀴살(Hub and Spokes) 동맹 체제의 일부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알

¹⁹ 다만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 만큼, 국가들이 기업의 ‘리쇼어링’에 신경을 쓰는 만큼 정부-정부, 정부-민간, 민간-민간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태평양 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 안보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집단안보 체제가 성립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뤄져 있다. 미국이 개별 동맹 상대국에 대한 동맹 제지를 위해 양자동맹 체제를 선호했다든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 때문에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일본을 포함한 집단 안보를 거부했다든지, 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여의 정책 노선을 일부 유지하고 있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반중 집단안보 체제를 주저했다든지 등과 같은 다양한 견해와 분석이 존재한다.

2017년 전후로 미국이 본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과거 바퀴살 체제 동맹 체제는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아시아 전체를 볼 때 미국의 동맹 체제는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취약해진 상태이고, 냉전 초기에 시도했던 동남아조약기구(SEATO)와 같은 집단안보 체제는 당시 한번의 시도 이후 더 이상의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미국은 싱가포르와 같은 전략 파트너 국가들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중국의 급증하는 경제적 영향력으로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왔는데, 바퀴살 체제는 미국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동맹 관리 기제는 우수할 수 있지만, 동맹국들 간의 협력은 미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²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나토와의 안보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 전략과 유럽 지역 전략을 연계하는 옵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참여하고, 특히 사이버 분야 안보 정책에 나토와 아시아 4개국 참여하면서, 점진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체계가 연결되는 구조가 되었다. 중국의 대대만 공세가 높아지면서, 대만은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어젠다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의 대만 사태 관련 안보 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주변 나토 국가, 대표적으로 폴란드

²⁰ "A Conversation with Dr. Kurt Campbell and Admiral Michael Gilday on the Strategic and Military Implications of AUKUS," *CSIS*, June 26, 2023, <<https://www.csis.org/analysis/conversation-dr-kurt-campbell-and-admiral-michael-gilday-strategic-and-military>> (검색일: 2023.10.1.).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소위 구조적 심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언론은 대만 유사사를 염두에 둔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국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부당한 군사력 사용에 대한 통합 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일 협력이 전통적인 안보 영역의 협력 가능성 차원을 넘어선, 지역적으로도 동북아뿐 아니라 동남아 및 지구 차원의 문제를 두루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들이 상호 협력을 선택할 때, 이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국가들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국제질서는 질서의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차원적 협력 구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적 다자 협력은 물론, 지역적 다자 협력, 그리고 소다자 협력 등이 중요한 협력 기재로 떠오른 바 있다.²¹

이러한 배경에서 맥락에서 한미일 협력은 협력의 방식에 있어서 지역 소다자주의 협력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다자 협력은 상호 간 의무 내용이 명확한 조약동맹이 아니라 각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라는 점에서 독특한 장점과 정체성을 가진다. 최근 들어, 미국은 기존의 바퀴살 동맹 체제가 아니라 쿼드(QUAD)와 오키스(AUKUS)와 같은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다자 협력은 어젠다 설정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필요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며, 해당 국가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시급하고 소위 맞춤형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에 유리한 협력 방식이다. 진영 간 블록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 형태인 관계로 협력 체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 인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를 주도하는 국가 혹은 과거 희생의 경험이 있는 약소국들은 의무 조항이 부담스러운 조약동맹 대신, 느슨한 의미의 네트워크로서 소다자협력을 보다 유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²¹ John Nilson-Wright, "Creative Minilateralism in a Changing Asia: Opportunities for Security Convergences and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India and Japan," *Research Paper of Asia Program*, (2017).

미중 전략경쟁, 유럽 안보의 구조적 악화, 중동 사태 등 지구적 차원의 다자주의 대처가 효력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소다자 협력은 의미 있는 협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²²

이렇게 볼 때 한미일 삼각 협력은 비단 동맹 체제의 연결이라는 성격보다는 소다자 협력의 특징을 함께 가지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와 같이 그간 동맹 체제에서 중시하였던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여타 이슈도 광범위하게 다룰 것을 예고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협력,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및 향후 규제 레짐을 위한 협력, 그리고 경제와 환경 부문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동맹 체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협력의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V. 향후 과제

1. 인도태평양 전략

‘캠프 데이브드 정신’ 앞에 놓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지역적 차원과 한국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한미일 3국 협력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와 실천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 있다. 관련하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동맹들과 공유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명백하다. 기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더욱 강화하자는 목적이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막고,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의 규범을 안착시키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태평양 전체와 인도, 그리고 인도양을 포함한 전략 공간이 한국의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도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 공간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인도와 아시아 국가들의 연합, 혹은 비자유주의 세력을 배제하는 인도태평양의 ‘해양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한국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성장했고,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효율적이고

²² Gordon Brown, “A New Multilateralism: How the United States can rejuvenate the global institutions it created,” *Foreign Policy*, SEPTEMBER 11, 2023.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의 진화를 위해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하는 점은 명백하다. 나아가 그 바탕이 되는 지역적 차원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며, 중동과 인도를 포함한 지역 역시 한국 이익에 핵심적으로 부합하는 지역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특히 에너지 수입과 관련된 수송로의 보호는 한국의 국익에 핵심적이다. 만약 미국의 동맹 체제가 수송로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중국과 수송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해양 경쟁의 시대에 돌입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의 해상 안보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도태평양의 개방성과 규칙 기반의 원칙을 추구하는데 미국 및 일본과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인태전략과 한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의 핵심에 놓여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양안 관계를 둘러싼 긴장이 증폭되고 있고, 만약의 경우 대만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도 충돌의 와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이러한 점에서 안보적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이 미중 간에 영향력 있고 주도적인 헤징 전략을 추구할 수 없는 현실은, 미중 전략 경쟁의 군사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현실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세계 질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조를 할 때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억제 전략을 참고하여, 한미일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 차원의 통합 억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 불안정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궁극적으로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층적인 억제 체제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할 뿐 아니라, 대만 해협과 한반도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한미일 삼국의 경제력 향상을 추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다자주의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체제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치 면에서는, 민주주의 역행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의 고양은 물론, 민주평화의 새로운 버전을

²³ 참고, 윤대엽,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 관계: 관여-헤징의 전략 모순,”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2호 (2021), pp. 183~216.

확보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민주적 관계 형성 및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 역시 추구해야 한다. 자유주의의 국제질서는 더 이상 미국 일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구적 리더십 연대로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남북 분단과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 때문에 한 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냉전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할 때, 역시나 한반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반도 문제는 비단 북한 핵개발 문제나 핵무기 비확산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미중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²⁴ 한반도라는 어떻게 보면 미시적 문제 해결 과정이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시적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이다.²⁵ 한반도 문제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고, 넓게는 동남아, 그리고 남중국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한국이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때, 한국의 교역과 에너지 수송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중국해 불안정한 상황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의 집중도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 한국에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취약 지대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한미일 협력은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주요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가지지만, 정책 실행 단계의 구체성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나라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양한 이슈들을 열거했다. 국제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국은 실행 단계에서 고유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였지만 각각의 정책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인 정책 실행 체계 및 지식과 수단의 확보에서 여전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구체적인 정책 실행 능력과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국보다 국력이 앞선 미국과 일본을 따

²⁴ 전봉근, 김태현, “탈냉전 30년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1호 (2020), pp. 223~256.

²⁵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관련한 연구는 참고, 김재철,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 (2017), pp. 1~32.

라가는(혹은 추종하는) 협력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3국 협력은 한국에게 기회이지만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다.

2. 한미일 협력과 한국의 국가 정체성

한미일 협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의 입장에서 직면하게 될 고유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견고한 국내 정치적 기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협력의 기제는 쉽게 약화될 수 있다. 미국은 내년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년 초부터 후보들 간 치열한 정책 대결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후보로 확실히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 한미일 삼각 협력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여전히 한국 내에서는 한일 양자 관계의 다양한 이슈를 두고 해결 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일 양자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의 세계 질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전략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일 삼각 협력이 중장기적인 한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외교 정책상의 로드맵은 쉽게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견고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얻어가면서 정책을 추구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 정치와 외교안보 정책이 다소 과다하게 연계된 한국의 현실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국내정치-외교’ 연결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한미일 3각 협력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배제하는 배타적 지역 질서 추구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 지속적인 경제적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향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면적인 탈동조화(decoupling)보다 위험 감축의(derisking)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

의 유럽 국가들과 심지어 일본조차도 경제 관계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중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향후 입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국제질서 안에 러시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천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행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고한 핵 억제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경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미일이 배타적인 안보 체제 구축으로 비추어질 때, 북중러 간의 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신냉전이라는 표현에는 레토릭 차원의 과장이 없지 않지만, 다중 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이 세계 질서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실현해 나갈 때, 북중러 3국 역시 협력과 경쟁의 건전한 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제사회에서 남반구(Global South) 국가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이 제도화의 길을 선택한 때와 동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브릭스 회원국이 11개국으로 확장된 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²⁶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현실에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며, 국제질서가 다양한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성을 증폭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한미일 3국 역시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지속적으로 진화되어야 하기에 한미일 협력이 지구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는 협력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⁷

VI. 맺음말

지난 8월 18일(한국시간) 한미일 삼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삼국의 정상이 독자적인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인 행사에서 한 자리에 모인 최초의 삼자 정상회담이었다. 3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익은 서로 다르지만, 국제질

²⁶ “브릭스, 사우디아라비아·UAE·아르헨티나·에티오피아 품는다,” 『연합뉴스』, 2023.8.24.

²⁷ Jude Blanchette and Christopher Johnstone, “The Illusion of Great-Power Competition: Why Middle Powers—and Small Countries Are Vital to U.S.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 24, 2023.

서 혼돈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함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태지역과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제질서 혼돈기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치와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가치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정신이고, 동시에 이제 어느 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공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외교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한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설계하고 제시한 소위 ‘능동 외교’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물론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한중 경제관계 등에서 우리의 이익이 미국 및 일본과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상들 간 합의가 제도적 차원의 실천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북중러 협력과 같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작지 않다. 하지만 어렵게 출범한 한미일 소다자주의 협력은 국제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 지는 현실에서, 새로운 국가들 간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도 규칙 기반 국제질서 정립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고, 나아가 그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제출: 11월 16일 ■ 심사: 11월 21일 ■ 채택: 12월 1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빅터 D 차 지음. 김일영·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Brummer, Chris. *Minilateralism: How Trade Alliances, Soft Law and Financial Engineering are Redefining Economic Statecraf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Calder, Kent and Ming Ye., *The Making of Northeast Asi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Kim, Samuel, 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2004.

Mazarr, Michael J., Jonathan S. Blake, Abigail Casey, Tim McDonald, Stephanie Pezard, and Michael Spirtas. *Understanding the Emerging Era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8.

Tow, William Tow, Mark Thomson, et al. *Asia-Pacific Security: US, Australia and Japan and the New Security Triangle*. N.Y.: Routledge, 2007.

Wiener, Antje. *Contestation and Constitution of Norms in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2. 논문

김재철.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 2017.

윤대엽.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 관계: 관여-헤징의 전략 모순.”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2호, 2021.

전봉근·김태현. “탈냉전 30년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 36권 1호, 2020.

Alder-Nissen, Rebecca & Ayse Zarakol. “Struggles for Recognitio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Mergers of Its Discont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3, no. 2, 2021.

Blanchette, Jude and Christopher Johnstone. “The Illusion of Great-Power Competition: Why Middle Powers—and Small Countries Are Vital to U.S.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 24, 2023.

Brown, Gordon. "A New Multilateralism: How the United States can rejuvenate the global institutions it created." *Foreign Policy*. Sep 11, 2023.

Huang, Qingming. "The Pandemic and the Transformation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26, no. 1, 2021.

Nilson-Wright, John. "Creative Minilateralism in a Changing Asia: Opportunities for Security Convergences and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India and Japan." *Research Paper of Asia Program*. 2017.

Norrlof, Carla Norrlof. "Is covid-19 liberal democratic curse? Risks for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3, no.5, 2021.

Walker, Darren. "Can the G-20 Be a Champion for the Global South?." *Foreign Policy*. Sep 8, 2023.

3. 기타 자료

"브릭스, 사우디아라비아·UAE·아르헨티나·에티오피아 품는다." 『연합뉴스』. 2023.8.24.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정책브리핑』. 2023.8.18.

"한미일, 北도발 대응 다개년 공동훈련계획 발표." 『연합뉴스』. 2023.8.18.

"NYT 한미일 정상회의, '아시아판 미니 나토' 중국 우려 심화." 『연합뉴스』. 2023.8.20.

"美언론 "對中 투자규제 행정명령, 미중 해빙 다시 냉각 가능성"." 『연합뉴스』. 2023.8.10.

Korea-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nd the Korea's Future Diplomatic Tasks

Park, Ihn-hwi

The Camp David Summit between Korea, US, and Japan was the first trilateral meeting among the three countries as an independent diplomatic occasion, not as a part of the other multilateral meetings. Even though the three have each own national identities and interests, they strongly believe that the three countries' cooperation should bring about the larger diplomatic and security benefits in facing the crisis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Camp David spirits also identified that 1) the three countries clearly share the importance of 'value & order-based' international order, 2) they also agree the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problems in international society no more can be handled by any single state.

It is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an active role and initiative in finalizing the Camp David joint statement. Korea clearly has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in some subjects as the other two countries have, but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tion to the cooperation with the two democratically advanced countries is very critical. It is important to consolidate the Korea's better status in international society with the beginning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nd we have to do our best to bring about a positive effect to the North Korea problem from the better status.

Key Words: Camp David joint statement, Korea-US-Japan cooperation, crisis in international order, Indo-Pacific strategy, unilateralism, order-based order